

## 무기는 도전과 응전의 歷史



PPSh-41 기관단총(일명 따발총).



### ‘무기의 탄생’

남도현 지음

력을 함해 미국보다 약할 정도다. 특히 항공모함을 호위하며 항진하는 이지스 구축함의 위용은 가장 적국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그러나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일지 모른다. 저자는 외형상 무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불러온 호전성을 비판하는 듯하다.

“무기는 굳이 발전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더욱 좋은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설령 전쟁을 벌이더라도 양편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살상 능력이 높지 않다면 그만큼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단지 무기가 흥밋거리로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로만 존재하기를 바랄 뿐이다.”

〈플래닛미디어·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람은 누구나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로마의 군사 전문가 베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은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흔히 전쟁 역지력을 갖추라는 이 말은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힘을 키우라는 의미일 터다.

군사 관련 칼럼니스트인 남도현 씨가 세계사 이면에 드리워진 무기의 탄생 비화를 조명한 ‘무기의 탄생’을 펴냈다. 무기의 개발과 등장, 퇴출에 얽힌 숨은 이야기와 다양한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가 ‘싸울 때에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를 의미한다. 넓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내가 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일컫는다. 인간이 생애의 가장 뒷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러한 무기(도구)를 만들고 활용하면서부터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무기를 같은 종인 사람을 살상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살상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이상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무기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자화상이기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라질 것 같지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특정 전투기나 거대 전함의 사연 많은 인간의 삶처럼 느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책에는 다양한 무기의 탄생과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초기경보기나 해상초계기의 탄생은 어느 일방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는 말이 무기와 관련해서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우리 국군의 기갑전력 및 전투함 개발사,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무기 개발 경쟁 등도 기술돼 있다. 걸프전에서 지상 타격 능력의 절정을 보여준 아이오와급 전함, 20세기 이후에 개발된 공격기, 항공모함, 기관단총 같은 새로운 무기정보도 담겨 있다.

현재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제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영국이 해군 강국이었던 지금에 비교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의 해군

## 건강 위협하는 치명적 유혹 ‘독초’

###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

김원학 외 지음

봄이면 지천에 새싹이 돋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꽃이 핀다. 사람들은 봄을 즐기며 산과 들로 나들이를 간다. 이 시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독초를 식용식물로 오인해 배탈이 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야생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숨어 있으면서 치명적 유혹을 던지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 소속 김원학 씨와 울산대의대 임경수·손창환 교수가 펴낸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을 품고 있는 식물들을 담고 있다.

책에는 식물독 라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옛 여인들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만들어준 피마자, 마취제로 잘못 쓰면 실명할 위험을 초래하는 흰독말풀에 관한 정보 등이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먹으면 미친다는 식물이지만 말미 방치 약재로 쓰이는 미치광이풀, 의류혁명을 이끌었지만 남성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복화 씨, 곰취와 같은 장소에서 자라는 탓에 헛갈리기 쉬운 동의나물, 북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디기탈리스’ 등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또한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뿐 아니라 사진까지 첨부돼 있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식물 세계를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문학동네·2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느끼며 읽었는가

### ‘독서에 관하여’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책이 존재하는 곳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이다.”

일반 독자들에게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작가로 기억되지만 그는 번역가였으며 미술 평론가이기도 했다.

출판사 은행나무의 고전 논픽션 시리즈 첫 번째로 출간된 프루스트의 ‘독서에 대하여’는 그의 예술론을 드러내는 두 편의 글과 화가들에 대한 에세이가 실려 있다.

프루스트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영국의 대문호 러스킨의 열렬한 애독자였다. 그러나 7년에 걸쳐 그의 책 두 권을 번역하는 동안 점차 그의 관점에 반발, 자



신만의 예술관을 세우게 된다. 이 글은 프루스트가 러스킨에게 받은 영향과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예술가가로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표제작 ‘독서에 관하여’는 특유의 서정적이고 호홉이 긴 문장으로 유년기를 생생히 살리고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그의 숨겨진 속면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은행나무의 고전 논픽션 시리즈는 예민 풀라 ‘전진하는 진실’, 랄프 왈도 에머슨 ‘자연’, 찰스 디킨스 ‘밤 산책’, 샤를 보들레르 ‘현대의 삶은 그리

는 화가’ 등이 있다.  
〈은행나무·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환경운동의 어머니 ‘레이첼 카슨’

### ‘레이첼 카슨’

윌리엄 사우더 지음

오는 4월 14일은 ‘침묵의 봄’을 통해 살충제 DDT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레이첼 카슨의 50주기가 되는 날이다.

존 제임스 오두번의 전기 ‘야생의 하늘 아래’로 풀려선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윌리엄 사우더가 전기 ‘레이첼 카슨-환경운동의 역사이자 현재’를 펴냈다. 철저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책을 쓴 저자는 레이첼 카슨의 사교에 영향을 미친 저술과 저자들,



그것이 그녀의 저작으로 결실 맺기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과학자답게 ‘시적’인 색채를 띠는 그녀의 저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초월적인 우정을 나눴던 도로서 프리먼 등 관련 인물들과의 이야기도 동성한 편지 자료 등을 통해 풀어냈다.

‘환경 운동의 어머니’로 불리는 레이첼 카슨은 ‘타인’이 선정한 ‘20세기

를 변화시킨 100인’에도 뽑혔다.  
〈에코리브러·3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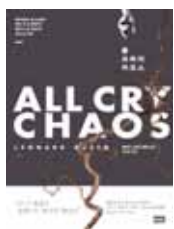
## 수학 천재 암살 사건으로 밝혀지는 음모

### ‘울 크라이 카오스’

레너드 로젠 지음

‘스틸러의 형식에 문학적 아우리를 풍기는 걸출한 지적 스틸러.’ 베스트셀러 논픽션 작가 레너드 로젠의 소설 데뷔작 ‘울 크라이 카오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매커버리 상 데뷰 소설 부문 수상했으며, 같은 해 에드거 상, 앤서니 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명성을 떨쳤던 세계적인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의 증손자인 인터뷰 형사 앙리 푸앵카레는 집요하고 불의를 참지 못



하는 성격이다. 천재 수학자 제임스 펜스터가 폭발 테러로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사건에 투입된 푸앵카레는 우연히 펜스터가 연구하던 ‘프랙털 이론’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푸앵카레가 체포한 보스니아 전장 범죄자 바노비치가 암시를 품고 푸앵카레의 가족을 위협하면서 그는 난관에 처하게 된다.

〈알에이치코리아·1만58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옛날 어린이들의 시, 그 엉뚱발랄 상상력

### ‘한시 이야기’

허경진 지음

“비는 오지 않는데 어디서 천둥소리가 들리나. 누런 구름이 조각조각 사방에 흩날리네.” 김시습이 세 살 때 유모가 보리방아를 쥘 것을 보고 지은 시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정약옹은 일곱 살에 앞산과 뒷산 크기가 다른 것은 원근법 때문이라는 시를 지어 어려서부터 사물의 이치를 탐구했음을 보여줬다.

피난 시절 목포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시를 읽고 외우고 풀이하는 일을 해온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옛 어린이들이 쓴 재치와 상상력 가득한 한시의 세계를 담은 ‘옛 선비들이 어릴 적 지은 한시 이야기’를 펴냈다. 2002년 웅진북스에서 나온 ‘넓고 아득한 우주



에 큰 사람이 산다’의 개정판이다. 책에 실린 옛날 어린이들이 지은 한시들은 동시지만 요즘 동시와는 다르다. 때로는 감격적인 발상에 웃음이 지어지고, 때로는 천재적인 상상력에 감탄하게 된다.

주위 사물과 풍경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담아낸 시구에서는 순수한 동심을, 자신의 처지와 현실의 아픔을 담아낸 시구에서는 감동과 지혜, 삶의 무게감을 느끼기도 한다.

책에 나오는 많은 어린 시인들은 신동이나 천재라고 불릴 만큼 글짓기에 탁월한 솜씨를 자랑한다. 타고난 재주 덕분이기도 했지만, 어릴 적부터 한시를 배우고 있는 데 익숙한 교육환경도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알마·1만6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신간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환경 분야의 진로는 협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알려 준다. ‘한국환경교사모임’에서 선정한 50명의 멘토들을 전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각자 만나고 싶은 멘토를 정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녹음한 내용을 몇 번씩 다시 들으며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은 글쓰이들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뜨인돌·1만5000원〉



▲엔지임하우스=1만6000원) ▲빛나는 단도=문학 전문 기자이자 소설가, 시인이면서 다양한 저서를 펴내기도 한 정철훈의 다섯번째 시집. 광주에서 태어나 소년 해체 이후 본토에서 러시아 관련 학위를 받은 시인은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강건한 문장을 무기 삼아 시와 소설을 넘나들며 역사와 시대를 작품 속에서 다루어왔다. ‘빛나는 단도’에는 웅송길게 스스로의 내면을 주시하는 시인의 시선과 이어서 따라오는 자신을 향한 질문이 담겨 있다. 〈문학동네·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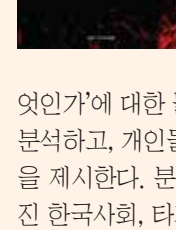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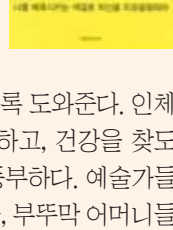
▲단순에 정리되는 세계사 이야기는 서양 역사 5천년이 단순해 보이고, 역사의 실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명쾌하게 정리했다. 서양 최초의 문명에서부터 고대, 중세, 근현대 역사의 흐름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한편으로, 서양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난 세계 역사의 실체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되살렸다. 〈중은날들·1만2800원〉

▲분노사회=젊은 인문 작가 정지우가 쓴 현대사회의 감정에 관한 철학에세이. ‘분노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분노사회에서 한국사회’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존재의 기술’을 제시한다. 분노와 관념의 관계에서부터, 집단주의의 병폐에 빠진 한국사회, 타자의 자대에서 발생한 수치심과 열등감 등 ‘분노사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경·1만1000원〉



▲검은, 그러나 어둡지 않은 아프리카=그동안 아프리카는 대륙이라는 단일한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이 같은 왜곡된 접근법은 있는 그대로의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서울 대상을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에 한정했다. 총 8장으로 구성했으며,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사회평론·2만원〉

▲의식주 힐링 컬러=7가지 색깔을 7장(章)으로 나누어 우리 몸의 생화학적 현상과 빛의 관계를 밝히며 의식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인체 부위와 색깔과의 공명 관계를 통해 질병을 해결하고, 건강을 찾도록 이끈다. 책에는 일곱 가지 색깔마다 사례가 풍부하다. 예술가들의 삶, 영화 속의 한 장면, 노래 가사, 역사 속 인물, 부부작 어머니들의 예기에 이르기까지 색깔과 인간의 관계를 일상의 삶을 통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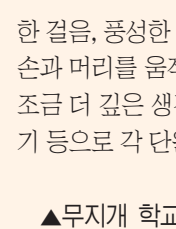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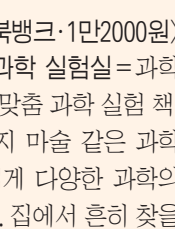
▲기분이 어때?=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즉 무서움, 실망, 행복, 슬픔, 화, 감사, 짜증, 부끄러움, 지루함, 시샘 그리고 자랑스러움, 띠며 있다. 멋쩍다 등을 하나씩 짚어 말해 준다. 주제가 뚜렷한 그림을 각각의 문장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해 아이가 단어와 특정한 감정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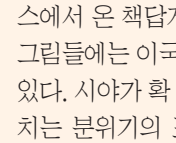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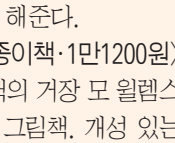
▲창의력 팡팡! 신기한 과학 실험실=과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 과학 실험 책.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50가지 마술 같은 과학 실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과학의 기초 이론을 공부할 수 있다. 집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실험들이어서 과학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준다. 〈북뱅크·1만2000원〉



▲한국사 편지 생각책=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신개념 역사 워크북. 해당 주제를 그림으로 구성해 한눈에 보여 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생각



한 길을, 풍성한 유물 등의 시각적 자료와 함께 손과 머리를 움직여서 해결하는 생각 두 걸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끌어내 보는 깊이 생각하기 등으로 각 단원이 마무리된다.



▲무지개 학교에서=프랑스에서 출판된 외서를 번역 출간했다. 예술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서 온 책답게, 작가가 실험을 기울여 그린 그림들에는 이국적이고 독특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 시야가 확 트이는 화려한 색깔과 개성 넘치는 분위기의 표현들은 아이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히늘콩·1만2000원〉

▲안돼요 안 돼!=그림책의 거장 모 윌렐스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형식 그림책.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재치와 위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무